

‘열정의 선율’ 내일을 연주하다

부문별 심사위원장



석유리
오보에 부문



나성덕
첼로 부문



송정민
클라리넷 부문



이승호
플루트 부문



구자은
피아노 부문

대회 참가자들의 실력이 해가 갈수록 발전되고 있어 심사위원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았지만 일부 종목은 참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에도 코리아헤럴드의 명성과 상의 취지에 걸맞는 음악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몇몇 부문은 1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는 화를 거듭 할수록 초등부와 중등부 참가자들의 실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콩쿠르의 부문별 심사평과 함께 각 부문별 1위(1위 없는 2위) 수상자들의 소감을 소개한다.

첼로



▶초등 저학년부 1위-송의초등학교 김태연

어려운 곡들로 도전한 이번 코리아헤럴드 콩쿨을 계기로 제 첼로 실력이 한 단계 더 높아져서 뿌듯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첼로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응원 해주신 담임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여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1위-울곡초등학교 박상혁

이번 콩쿨에서 영광스럽게도 1위를 하게 되어 기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열심히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학년부 1위에 이어 고학년부 1위를 다시하게 되니 감사함이 두 배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예중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콩쿨에서 입상한 계기를 발판삼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첼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중등부 2위-예원학교 홍세희

짧은 방학기간동안 준비하느라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이끌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베풀목이 되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1위-서울예술고등학교 김정현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큰 상을 받게 되니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선 항상 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선생님과 가족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입시생이라는 위치 때문에 다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번 콩쿨 수상을 계기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겸허한 마음을 갖춰 더욱 발전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라리넷



▶초등 고학년부 1위-신동초등학교 공성민

연습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좋은 소리를 상상하면 다시 행복해진다. 스스로 선택한 꿈이라서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노력에 따른 성과가 있기도 하고 실패가 있기도 하지만 항상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따뜻한 연주자가 되도록 기도한다. 언제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일반부 1위-성신여자대학교 김사라

준비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았는데 결과까지 좋게 다가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연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피아노



▶초등 저학년부 공동 2위-서천초등학교 박재원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1위가 없는 공동 2등이라 조금 아쉽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피아노 연습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연습을 많이 해서 감동 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1위-장기초등학교 김연우

피아노 연습이 힘들다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무대에서 제 노력만큼의 연주를 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늘 믿음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늘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해주는 내 동생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나의 생각이 많이 깃들여진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음악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부 1위-예원학교 배진우

이번 코리아헤럴드 콩쿨에서 입상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항상 옆에서 든든한 마음의 베풀목이 되시는 부모님, 진정한 예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선에서 찾던 쇼팽 스케르초 3번은 제가 피아노를 시작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곡입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곡으로 의미 있는 콩쿨에서 입상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며, 다가오는 미래에도 내면의 소리를 찾는 깊이 있는 예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부 공동 1위-서울예술고등학교 이아영

가장 먼저 콩쿨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시라는 경쟁 속에 자신감을 잃어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코리아헤럴드 콩쿨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해주는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처럼 챙겨주시고, 보다 더 폭 넓은 음악으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더 깊이 공부해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활발히 연주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일반부 공동 2위-한양대학교 이재현

본선에 연주했던 F.Liszt의 “Rhapsodie Espagnole”을 2년 전에 연주하고 지금까지 연습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곡을 연주해야 될 일이 생겨 단기간에 다시 연습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곡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테크닉 적으로도 아주 어려워서 중간 부분과 뒷부분 연습에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회당일 3분 남짓한 시간밖에 연주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저의 연주를 좋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여태 지난 3년 동안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과 올해부터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등부 대상



성악남자 선화예술고등학교 황준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가족 그리고 저의 스승이신 이모부와 이모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지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악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일시를 앞두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성악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루트



▶초등 저학년부 1위-대현초등학교 안유나

플루트를 연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리아헤럴드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주를 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플루트 연습에 전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1위-한내초등학교 차재현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오늘 같은 기쁨으로 저에게는 큰 희망과 미래의 발전된 모습으로 저를 기쁘게 합니다. 항상 저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과 콩쿨 때 마다 잘하고 오라는 오빠가 있어 오늘도 저는 힘이 나서 기쁘고 행복하게 미래를 위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해 즐겁게, 즐기면서 악기를 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1위-예원학교 박지민

코리아헤럴드 콩쿠르에서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전공자들보다 좀 늦게 시작해 쫓아가느라 즐기는 법을 몰랐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악기에 대한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 연습 또한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따뜻한 깊이 있는 연주자가 되는 건데 이 상을 계기로 한발 더 다가선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공동 1위-서울예술고등학교 박여진

오랜만에 나간 콩쿠르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무반주곡으로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 이번 입상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으며 자신감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여 사람들을 웃게 하는 좋은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고등부 공동 1위-계원예술고등학교 정찬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 나간 콩쿨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콩쿨은 남은 입시기간을 더욱 열심히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른



▶중등부 1위-계원예술학교 유지성

중학교에 들어와 첫 콩쿨에 참여하여 1등이라는 큰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상을 받을 수 있게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이름만 들어도 ‘하~~’하면 알 수 있는 최고의 호른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부 1위-대원여자고등학교 강수진

항상 응원해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여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콩쿨을 나가 더 자신감이 생겼고 이것을 계기로 더욱 더 발전하겠습니다.

